



함평다이너스티에 물려든 갤러리

2009 KB스타투어 1차대회 최종라운드가 10일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가운데 안선주가 속한 마지막조의 퍼팅을 보기 위해 수많은 갤러리들이 18번홀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안선주, 함평서 활짝 웃다

KLPGA 'KB 스타투어 1차 대회'

### 서희경 추격 따돌리고 시즌 첫 우승

안선주(22·하이마트)가 10일 종료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대회에서 2년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안선주는 10일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장(파72·6천31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전반에 더블보기를 적어내는 등 흔들리기도 했지만 후반 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쳐 2위 서희경(23·하이마트)의 추격을 6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던 서희경은 최

종일 경기에서 7타를 뒀던 채 추격에 나섰지만 합계 6언더파 210타로 2위에 오르는데 그쳤다.

2006년과 2007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안선주는 작년 대회에서 연장전으로 끌려가 조아람(24·ADT캡스)에게 우승컵을 넘겨주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제는 미국 무대로 진출한 신지애(21·미래에셋), 지은희(23·휠라코리아)와 함께 KLPGA 투어 3강 체제를 이뤘던 안선주는 작년에 무릎 부상 때문에 1승에 그쳤지만

KLPGA 'KB 스타투어' 최종순위

순위	이름	타수	성적
1	안선주	-12(204)	68-66-70
2	서희경	-6(210)	73-68-69
3	임지나	-4(212)	72-68-72
4	유연주 박유나	-3(213)	74-68-71 68-69-76
6	김보경 김현지 신은정 안신애	-2(214)	72-71-71 73-68-73 70-72-72 66-72-76
10	양수진 김희정	-1(215)	72-71-72 68-71-76

이번 대회 우승으로 1언더파 떠오른 서희경을 견제할 선수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3타차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맞은 안선주는 1, 2번홀에서 연속 버디 2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적어내며 전반에 1타를 잃어 버렸다.

이후 버디 퍼트가 계속 홀을 외면하면서 8개홀 연속 파행진을 벌이던 안선주는 14번홀에서 세번째 샷을 1.2m에 붙여 버디를 잡아낸 뒤 15번홀(파4)에서 1타를 줄여 우승을 예고했다.

서희경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서희경은 13번홀까지 3타를 줄여 안선주에 3타차까지 쫓아갔지만 14번홀에서 1타를 잃어버리며 주춤했다.

서희경은 15, 16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다시 추격의 불을 댕겼지만 마지막 홀에서 1타를 잃었고 안선주는 17번홀(파4)에서 3.5m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우승에 췌기를 막았다.

서희경과 함께 선두그룹을 이루며 맹추격을 벌이던 박유나(22·동아회원권)는 마지막 홀에서만 무려 4타를 잃으며 공동 4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만원관중 힘 받은 KIA, 롯데에 2-1승

'야구 열풍으로 뜨거웠던 광주의 주말'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9차전이 열린 1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만 3천40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시즌 6번째 만원 사례를 기록했다.

전날 이어 두 경기 연속 매진 행렬이 이어지면서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는 모두 3만3천247명이 경기장에 입장했다. 표를 구하지 못해 돌아선 관중들까지 더하면 3만5천여명이 주말 야구장 나들이에 나선 셈이다.

아직 5할 승률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좌완 특급' 양현종, 마무리로 변신한 '월드 스타' 윤석민으로 한층 든든해진 마운드와 홈런 1위(10개)를 달고 있는 '빅 초이' 최희섭 그리고 '만루 홈런의 사나이' 김상현이 버티고

선 타선의 움직임이 팬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10일에는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인 오후 4시57분에 입장표가 동이 나면서 광주에 불어닥친 야구 신바람을 실감케 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5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졌지만 관중들의 야구 사랑은 이보다 더 뜨거웠다.

특별한 손님들도 무등경기장을 찾았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테드 르빈 부단장이 이날 롯데의 로이스터 감독을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테드 르빈 부단장은 "WBC 등을 통해 한국 야구의 실력을 확인했지만 야구 열기가 이 정도로 뜨거운 줄 몰랐다"며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보면서 한국의 야구 사랑을 실감했다"고 감탄사를 쏟아냈다.

2009시즌 KIA의 6번째 매진 기록은 한화

이글스가 기록한 7번에 이어 두 번째다. 6번째 만원 관중이 입장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관중수가 대폭 증가했다.

올 시즌 18번의 홈경기 평균 관중은 8천25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평균 6천364명에서 20.7%가 늘었다. 지난해 6월7일 윤석민이 선발로 나선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가 6번째 만원 경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 시즌 만원 기록은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만원 관중의 응원을 힘입은 KIA는 10일 6피안타 9탈삼진 1실점으로 7이닝을 지키며 4승을 올린 구톰슨의 호투를 앞세워 2-1로 승리하며,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2승1패를 기록했다.

임준혁은 삼진 3개로 8회를 마무리하며 홈드를 기록했고, 9회초 마운드에 오른 윤석민도 삼진 1개를 추가하는 등 세 타자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시즌 4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인경 2승 기회

LPGA 미켈름 3R 1타차 공동 3위

김인경(21·하나금융)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켈름투트라오픈에서 생애 두 번째 우승 기회를 맞았다.

김인경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킹스빌 골프장 리버코스(파71·6천31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곁들여 4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14언더파 199타를 친 김인경은 공동 선두 린제이 라이트(호주), 크리스티 커(미국·이상 15언더파 198타)에 1타 뒤진 3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맞게 됐다.

김인경(21)도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내 중간합계 13언더파 200타로 4위에 올라 마지막 날 동갑내기 김인경과 같은 조에 편성, 생애 첫 우승을 노린다.

한편 신지애(21·미래에셋)는 5오버파 76타를 치는 부진으로 공동 51위(1오버파 214타)로 떨어졌고 위성미(20·나이키골프)도 공동 28위(3언더파 210타)에 머물렀다.

/연필뉴스

## "올 시즌 최소 3승이상 하고 싶다"

시즌 첫 승 안선주 일문일담

다음은 2009 KB국민은행 스타투어에서 우승한 안선주 선수와 일문일담. -우승 소감은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기쁘다. 그리고 시즌 첫 우승이라는 점이 더욱 기쁘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했나

▲초반에 많이 흔들려서 사실 긴장을 많이 했다. 하지만 경기 도중 갤러리 한 분이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니 다시 침착하게 경기에 임했다. 특히 1, 2라운드 때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 초조했는데 실수를 최대한 줄이자는 생각으로 매 홀 최선을 다했던게 주효했다.

-5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했는데

▲89야드 남은 거리에서 피칭에지로 쳤는데 볼이 날아가다 뒤로 오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불었던것 같다.

-우승 확신은 언제쯤

▲15번 홀에서 버디를 성공 시킨 후이제는 편하게 경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긴장을 푼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홀을 마무리했다.

-경기 중 캐디인 아버지와 무슨 얘길 나눴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하지만 5번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했을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대로 편하게 치라'고 말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

-올 시즌 목표는

▲상금왕, 대상 등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매 대회마다 톱10에 들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가능한 최소 3승 이상은 하고 싶다.

-함평다이너스티CC 그린 컨디션은 어떠했나

▲오늘 바람이 많이 분 탓인지 그리니 전날보다 훨씬 빨랐다.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